



벤처인 인맥 수 일반 엘리트의 절반

미래의 파워 엘리트

정보통신기술 전문 기업인 ‘팹텍 계열’의 박병엽 부회장은 미래 엘리트를 보는 거울이다. 1991년 봄, 그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10평짜리 집을 담보로 4000만원을 마련해 직원 6명과 무선호출기(삐삐) 제조업체를 세웠다. 14년이 지난 올해 이 회사의 매출 목표는 4조 5000억원, 직원은 49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대형 정보통신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서울 중동고와 호서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부회장은 본지 조사 결과 ‘학연 엘리트’(학교, 학과, 학위, 재학기간 중 세 가지가 겹치는 엘리트 동문)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추진력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냈다.

본지는 조인스 인물정보에서 추출한 엘리트 3만1800명 가운데 벤처기업인 1229명을 별

도로 분석했다. 기술력과 창의력, 도전 정신의 상징인 벤처기업인들을 통해 미래 엘리트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인은 학연, 직연, 혈연 등 인맥의 도움 없이 일어난 ‘자수성가형’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동창 관계로 연결되는 엘리트가 평균 37명으로, 일반 엘리트(70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직장 관계로 연결되는 엘리트도 일반 엘리트의 25분의 1에 그쳤다. 학교 또는 직장 관계로 연결되는 엘리트가 전혀 없는 사람도 71%와 64%나 됐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온 벤처기업인은 34%로 일반 엘리트(50%)보다 훨씬 적었다. 서강대 김영수(사회학) 교수는 “학벌사회가 퇴조하면서 실력,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들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정치 엘리트가 지고 경제 엘리트가 뜰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양대 나성린(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시장 규모가 커지

면서 정치인,관료보다 경제인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50년대생 경제인의 학연은 의료,교육인의 17~30% 수준이었으나 386세대에서는 40~55%로 좁혀졌다. 기업인이 재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는 것이다.

연예,오락,스포츠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스타 엘리트가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사회에서는 이미 대중스타의 영향력이 정치인의 영향력을 뒤집었다. 인터넷 미니홈피 누적 방문자 수에서 대중스타 부문 상위권인 텔런트 김희선씨는 1042만여 명을 기록, 정치인 1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341만여 명)의 세 배를 넘었다. 또 2위 이명박 서울시장(58만여 명)과는 18배나 차이가 난다.

게임 매니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래머 임요환(25)씨의 연봉은 2억원, 팬클럽 회원 수는 65만 명이다. 임씨는 “프로그래머의 생명인

독창적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피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스타들이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다.

여성의 약진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화여대 허라금(여성학과) 교수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될수록 여성 엘리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공무원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절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95년 8.8%에서 2004년 24.4%로 10년 동안 세 배 정도로 늘었다. 올 외무고시에서도 여성 합격자 수가 처음으로 50%를 넘었고(19명 중 10명), 수석,최연소 합격자도 여성이다. 외무고시 수석 합격자인 장혜정(24, 서울대 영어교육 3)씨는 “여성이 아닌 한 사람의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줄 벗어나 엘리트 구조 다원화

네트워크 분석 맡은 ‘사이람’ 김기훈 대표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엘리트를 해부한 것은 격동의 세월을 돌이켜보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모든 분야의 엘리트를 통째로 들여다 보고 특징을 찾아냈다는 것은 큰 성과다.

분석 과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인스 인물정보에 담긴 27만여 명의 인사 중 최상위 엘리트 10%에 해당되는 3만 1800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휴먼 네트워크’(학연,직연,지연,혈연 등)를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추출해냈다. 이어 엘리트의 응집도와 연결망 강도에 따라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고 세대별 엘리트 충원 경로와 변화 양상 등을 밝혀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엘리트 구성원과 네트워크가 다양화.

다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트로 충원되고, 다원화된 그룹을 이루면서 경쟁, 협력하고 있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관념으로만 보면 우리 사회는 변치 않는 ‘연줄사회’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우리 사회는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유기체였다.

연구 한계도 있었다. 조인스 인물정보 자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만큼 인물정보 수록자가 기록하지 않은 정보는 분석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취재팀의 자료 보정 노력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사회과학적 지식, 사이람의 네트워크 분석 역량이 결합해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효율적인 망을 구축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엘리트 사회의 과거, 현

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본 이번 분석이 네트워크 안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파워 엘리트들에 물어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줄

직연 49%, 학연 29%

파워 엘리트의 절반은 지연, 혈연보다 일과 연관된 직장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본지 여론조사팀이 조인스 인물정보에서 추출한 파워엘리트 3만1800명 중 769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와 e-메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 인맥을 중요시했다. 40세 미만 엘리트들은 직연(73%), 학연(9%)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했다. 혈연이나 지연을 꼽은 사람은 없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학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5%를 넘었다. ‘아우 세대’들은 일로 뭉쳐진 인간 관계에, ‘형님 세대’들은 전통적인 연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엘리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이 1위에 올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백범 김구, 세종대왕 순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62%가 정치인을 꼽았다. 언론인, 경제인, 법조인, 교육인이 그 뒤를 이었다. 엘리트들의 문화생활을 살펴보면 TV프로그램 중에는 뉴스(32%)를 가장 즐겨봤다. 골프, 바둑, 다큐멘터리 등의 케이블TV와 ‘불멸의 이순신’ ‘징기즈칸’ 등 역사 드라마도 상위에 올랐다.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는 ‘삼국지’를 1위로 꼽았다. 김훈의 ‘칼의 노래’,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 박경리의 ‘토지’ 등도 인기였다.

미래 엘리트, 그들이 오고 있다

신세대 성공 키워드는 학연·지연·직연 아닌 실력, 창의성, 소프트 파워

미래 엘리트가 오고 있다. 이들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를 예고한다. 본지는 ‘한국사회 파워엘리트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엘리트의 학교.지역.직장.집안 연줄망이 빠르게 해체.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명문고.명문대의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지방 인재와 여성이 약진하는 추세도 밝혀졌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본지는 엘리트 3만1800명의 학연.지연.직연.혈연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 엘리트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학연보다는 실력을 중시하고, 연예인.스포츠 스타가 명실상부한 사회의 엘리트로 부상하며, 창의력을 갖춘 전문가가 각광받고, 여성이 남성의 독점구조를 더욱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처럼 실력.창의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미래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본지가 벤처기업인 1229명을 상대로 학교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인맥 수는 전체 평균 엘리트의 53%에 불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 엘리트 769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학벌.집안보다는 ‘자신의 노력’에서 찾았다.

본지는 기존 엘리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래 엘리트의 요소를 가진 상징적인 인물 4명을 선정했다. 사상 최연소로 올해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송유근(7)군은 간판보다는 실력을 택했다.

송군은 인하대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다. 송군의 아버지(46)는 “서울 소재 명문대에서 입학 권유가 왔지만 아이가 1대 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했다”고 했다.

유명 연예인.체육인 같은 ‘소프트’ 엘리트는 문화의 턱을 넘어 정치.사회 문제에 개입하면서 정치엘리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골프 천재 노승열(14)군은 “타이거 우즈 같은 골퍼가 돼 전 세계에 한국

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보통신.생명공학 분야에선 기술력.창의력을 내세운 엘리트가 대접받을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의 채은도(27) 개발실장은 “창의력을 믿고 대기업 대신 벤처기업을 택했다”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능력을 맘껏 발휘하는 벤처의 매력에 끌렸다”고 말했다.

법조계.의료계에서 불기 시작한 ‘여풍’(女風)은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권.공학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국회의원.정무직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최연소로 서울대 교수가 된 김현진(30) 교수는 “여성 공학도가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